

수행의 길, 염불소리 꽃비 되어 흐르네

비로자국제선원 글로벌 불교인재양성센터 건립 기금모연 선화전시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처음 했을 때 자우 스님(비로자국제선원 주지)의 염불 소리에 맞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신심이 났어요. 스님께서 꽃잎을 뿌려주셨는데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죠. 그때의 느낌과 더불어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깊은 산속의 절을 찾아가는 기억을 되살려 봤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곳 좋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보면 바로 부처님 찾아가는 길을 작품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는 참나를 찾는 수행의 길을 그려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이 문뜰에 기대어 있는 형상이죠. 마음 자리 공부를 하고 자기 수양을 통해 지비의 꽃을 마음에 안은 수행자로 집 안에서 공부해서 밖으로 나가는 시점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은숙 작가의 '염불소리 꽃비 되어'. 자비도량참법 기도에서 느낀 환희심을 화폭에 담았다.

11월 1일~10일 나무갤러리서

신은숙 작가 작품 50점 기증

결림없는 마음·혼자서 가라 등

이밖에도 연잎 한 점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더불어 부처님의 얼굴을 표현한 ‘혼자서 가라’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 진리로 가는 행복의 과정을 담았으며, 먹 작업의 ‘수행의 길’은 천지인의 합일을 그려냈다.

신은숙 작가는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해외 전시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중견 여성 문인화가로 전시 판매 수익금을 글로벌

불교인재 양성센터 건립 모연금으로 기부한다. “평소 국제포교를 위해 애쓰시는 자우 스님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공간이 부족해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없으니 늘 아쉬웠죠. 이번 전시가 건립발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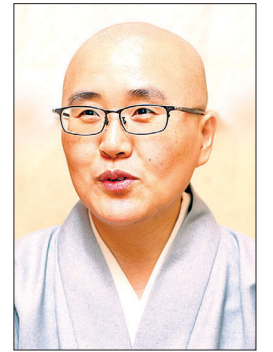
서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건립발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비로자국제선원이 국제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02)6012-1731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 세계화, 인재 양성에 달렸죠”

글로벌 센터 건립 추진하는 자우 스님

“대형 교회는 영어법회에 2~3백명의 어린이들이 영어예배에 참가해 선교의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는 아직도 영어법회가 보편화 되지 못한 상태죠. 비로자국제선원은 오랜 시간 어린이·청소년 영어법회 등을 통해 꾸준히 포교해오고 있지만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수행 지도, 불교교리 지도, 고민상담 등 한국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정서적 요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비로자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사진)이 외국인 포교와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한 글로벌불교인재양성센터 건립을 위한 개원 8주년 기념법회를 11월 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 동시에 기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 ‘염불소리 꽃비 되어’를 11월 1일~10일 나무갤러리에서 연다.

글로벌불교인재양성센터는 영어를 기반으로 어린이·청소년, 외국인 불자, 스님과 일반인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된다.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불교 세계화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을 위한 불교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자우 스님은 강조한다. “글로벌불교인재양성센터는 외국인에게 참선 절 열매 절 간경 사경 등을 통

양성센터는 △영어로 불교를 교육할 수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위한 역량결집 및 교육양성기관 △외국인을 위한 불교서적의 번역 △영어 염불의식의 연구 및 제작 △스님들도 국제적인 감각과 문화 습득 및 외국인들을 수행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스님은 “아직 부지 확보는 못한 상태지만 모연을 통해 기금이 확보된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 도심에 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사모연을 위한 선화 전시회를 갖는 동시에 1인 월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행 1006-701-346789, 예금주=비로자국제선원 정혜속 기자

“지화는 전통불교의 맥 이어가는 작업”

석용 스님 전통지화전시회 10월 30일~11월 5일



“지화는 불교의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한국 전통 문화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때문에 2008년 10월 서울 관문사 성보박물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지화를 만드는 일이 곧 수행이라 생각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에서 지화를 사용했어요. 특히 불교에서는 영산재, 수륙재 등 불교행사에 지화를 장엄해왔죠.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했고, 크기가 종류에 제한 없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으며, 행사 후에 소각하는 등 처리가 간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가 보급된 뒤 생화를 대량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지화는 점점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화 제작 방법 또한 점차 사라져 현재는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태종에서는 준공 스님을 비롯해 저와 여러 스님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지화를 만들어 각종 불교의식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화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영산

재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이다. 영산재에는 약 1000여 송이의 지화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한지를 물들인 염료도 쑥 등 천연재료를 가공해 만든다.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영산재에 사용할 1000여 개의 지화를 완성하려면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형색색 크고 작은 꽃 모양에 맞게 한지를 재단하고 염색하고 말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용 칼로 꽃잎 하나하나를 찢는 과정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인내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천태종 지화의 맥은 현재 천태종 총무원장 준공 스님이 1971년 인간문화재 범패전승자 겸 권수근 스님으로부터 지화 제작 방법을 사사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석용 스님이 1982년 구인사로 출가하면서 준공 스님으로부터 지화 만드는 법을 전수 받았다.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장엄분야 이수자인 태고종 장벽용 스님과 정지광 스님에게 지화 제작법을 사사했다. 현재 석용 스님은 천태종 스님들과 재가자들에게 지화 제작을 전수하고 있다. (043)420-7310

정혜속 기자



석용 스님이 전통방식으로 제작한 '지화'

“나눔과 비움의 가치 부처님 일생으로”

'붓다, 일곱 걸음의 꽃' 10월 31일~ 11월 2일

감각적 동양 의상과 현대적인 무대미술의 조화, 독경과 서양악기의 점묘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현대무용의 새로운 장을 펼친 파사무용단(예술감독 황미숙)의 '붓다, 일곱 걸음의 꽃' 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한국공연예술센터 공동기획”에 선정되어 영평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0월 31일~ 11월 2일 아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부처님의 일생을 다룬 '붓다, 일곱 걸음의 꽃' 은 2012년 초연 이후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연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2년 만에 주인공이 오창익 씨로

바뀌고, Mnet의 '댄싱9' 출연으로 인지도가 쌓인 이윤희 씨가 합류해 새로운 무대를 펼친다.

2대 붓다 오창익 씨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무용축제인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MODAFE)에서 스파크플레이스 신인상을 수상하고 안무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현대무용가다. 그는 부드럽지만 강한 붓다 연기로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나눔과 비움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심정민 무용평론가는 오창익 씨에 대해 “붓다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성격으로서 작품 전반에 드라마틱한 무게감과 긴장감을 더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댄싱9 시즌2'의 레드왕즈덤 활동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이윤희 씨는 천수관음을 열연한다.



2014년 2대 붓다로 선정된 무용가 오창익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며, 10인 이상 단체 예매는 30% 할인이 가능하다. (02)2263-4680 정혜속 기자

조재익 '붓다 꽃이 피다2014'

조재익 작가의 15회 개인전 '붓다 꽃이 피다2014'가 10월 29일~11월 5일 가회동 60에서 열린다. 작가는 옛길 시리즈와 붓다 시리즈 등 14점의 작품을 전시, 구도의 길로 향하는 여정을 작품으로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경주 남산, 간다

라, 크메르 등의 불상들을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표현해 주목된다. 작가는 “미얀마 바간, 국내 폐사지 등을 여행하며 수행한 느낌을 다양한 모습의 불상과 함께 담아냈다”고 전했다. 010-2813-1213

정혜속 기자



조재익 작가의 '붓다 꽃이 피다11'

대한불교조계종 전경 대선사님 67권째 저서 출간!

바로 유마경 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불>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큰우테크(주)

“산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큰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큰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가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사전에 운전만을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령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중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삼보양초

① 원기동충 / 원기동한 BOX 20개 - 가격 : 9만원 (금초송사예정 11만원)	② 두타 레용 초 40개 - 가격 : 9만원 돈타레용금초 40개 - 가격 : 11만원	③ 등산불용(대) 25개 등산불용 40개 밀대 한 BOX - 가격 : 9만원	④ 밀대금초 한box - 50개 95,000원 밀대 한 BOX - 50개 75,000원
---	---	---	--

중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윽음이 적고 오래 탄다.
-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청로 14번길 17(거제동)
소원사 주지 도명 합장